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32>

불교가 경제에 대해 중도주의 즉, 물질적 복지를 결코 적대시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석존의 교단에서는 처음에는 승가에서 화폐(돈)를 갖는다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다.

스님이 탁발(托鉢)할 때, 현금 보시가 있어도 손으로 직접 받는 것조차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초기 불교 당시 어찌하면, 돈은 물욕의 심벌로 이해되고 있었을 것이다. 돈이 물건과 물건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인식했다면, 돈을 새삼스럽게 물욕의 대상으로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돈에는 마력(魔力)도 같은 것이 있다. 예컨대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처럼, 두 주발 짜 쌀은 첫 번째 주발의 쌀보다 물욕이라는 측면에서 매력(魅力)이 뒤떨어지는 데 비해, 돈에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 사이에 매력의 우열이 없다.

그러한 의미에서 돈에는 물건에 비해 쇠퇴하지 않는 마성(魔性)이 있다고 경제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석존에게 그만한 경제지 지식이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화폐 부정부(不淨觀) 즉, 돈은 더러운 것이라는 의식은 교단에서 점점 쇠퇴해 갔다. 그것은 화폐경제가 불교교단 안으로 흘러들어 왔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 후의 역사적 전개 속에서 가톨릭과 불교에서는 이자(利子)에 관한 취급이나 사고방식에 커다란 차이가 생겨났다.

가톨릭교회의 강한 영향하에 있었던 중세까지의 서유럽에서는, 이자가 붙는 돈의 대차(貸借)행위는

금지되어 있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는, 약점을 이용하여 이자를 징수한다. 그 때문에 빈부의 차가 가일층 심해진다는 소극적자 문제에 주목하여, 가톨릭은 이자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 같다.

이에 대해 불교에서는 이자로서 돈이 보다 커다란 기능을 하는 면에 주목해, 이자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교단에 기부된 돈은 승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불허했으나, 교단 운영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오히려 장려되었던 것이다. 일본의 불교학자인 토모마쯔(友松)씨에 따르면, 승가를 위해서는 바로 금리를 추구할 것이라는 말이 석존에게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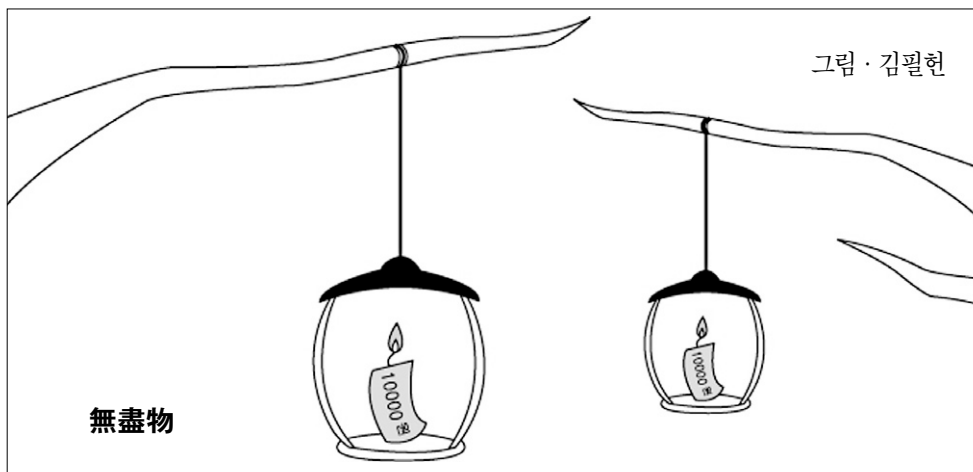
이러한 승가교단의 운용기금에 '무진물'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무진(無盡)'은 <화엄경>의 중요 사상이다. 또 <유마경(維摩經)>에 있는 무진등(無盡燈)의 비유는 부처님 가르침이 증생교화를 통해 무한히 이어지고 퍼져나가는 것이 마치 등불의 불꽃이 전파되어 끊임없이 퍼져나가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묘사했다. 우리나라에서 한 때 돈놀이 하는 회사를 '무진회사'라 했고, 무진물(無盡物)이라는 돈의 이름도 그러한 뜻에서 붙여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에 '무진장법'이 제창되고, 당대에는 '무진장원'이 설치되어 그 기금의 이자를 사원의 건축비로 사용했다고 한다.

오늘날 중앙은행의 은행권(지폐)이 금융시장에 유통되기까지는 다음 세 가지 방식을 취할 수밖에 없다.

돈만을 물욕의 대상으로 경계할 필요 없어

초기 승단 돈=물욕... 교단운영 위해 기부금 활용 장려



- (1) 금(외화 등)이나 국채를 중앙은행이 사들인다.
- (2) 시중은행에 대출한다.
- (3) 정부에 대출한다.

은행권의 유통방법이 적극적이면 시장에는 은행권이 증가한다. 거꾸로 그 유통방법이 소극적이면 시장에는 은행권이 감소하는 것이다. 통화의 유통방법이 적극적이거나 소극적이거나 따라 커다란 영향을 받는 것이 돈의 값 즉, 이자이다.

돈이란 것은 한국은행권(지폐) 외에 수표 등도 포함되며, 은행에 맡겨두고 있는 예금을 그대로 상대방의 계좌에 넣어주는 것으로서 돈을 지불하게 되는 등, 돈의 종류와 개념도 복잡해지고 있다.

돈이라 불리는 것의 총량은 항상 사회의 상품 총량에 대응한 수요 공급의 관계, 즉 돈(수요)으로 상품(공급)을 산다는 관계에 있다. 돈이 너무 많아지면 물건 값이 급세 오르고, 너무 적으면 물가는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밸런스가 무너져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게끔 은행권의 양과 이자의 높이(금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돈의 파수꾼'이라 불리는 까닭이다.

물가가 너무 오르는 것이 인플레이션, 너무 떨어지는 것이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다. 은행에서 돈을 이미 빌려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경제인으로서 물가가 오르는 편이 유리해진다. 왜냐하면, 물건을 공장에 두는 것만으로도 물건 값이 올

라 이익이 생긴다. 게다가 예컨대 빌린 돈이 1000만원이고 10%의 인플레이션이 있을 시 값은 때에는 돈값이 10% 떨어져 있으므로 실제로 따져보면 900만원의 돈을 갚으면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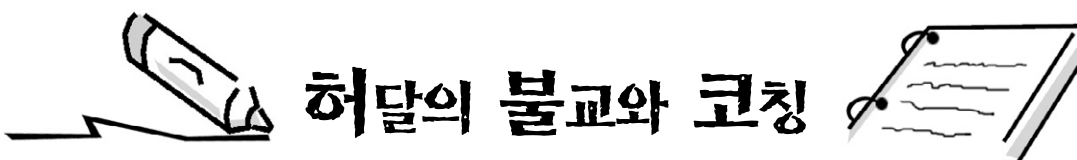
따라서 화폐 발행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그만큼 현금을 보유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라는 의미에서 인플레이션 조세(inflation tax)라 부른다. 화폐 발행을 통한 재원 조달은 일시적으로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으나, 자칫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하면 경제기반을 붕괴시킬 수도 있다.

러시아 혁명의 지도자 레닌은, 자본주의를 붕괴시키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화폐개혁의 추락 즉, 인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화폐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최근 북한의 화폐 개혁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치라기보다는 다른 목적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장을 자신들의 뜻대로 통제할 수 없는 북한 지배계층이 시장경제를 통제하고 신용 금융세력들을 말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 있다. 화폐개혁으로 결국 그동안 축적한 자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교환 가능한 액수를 제한함으로써 화폐의 가치 저장기능 또한 크게 손상시키고 말았다. 따라서 북한의 이번 화폐개혁은 불교경제학의 기초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된 셈이다. 자칫 북한의 화폐개혁이 북한 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져 행여 중국 경제시스템으로의 편입이 가속화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기도 한 것이다.

■ 인동대 경제학과 교수

32 Think Twice



허달의 불교와 코칭

지난 번 쓴 칼럼, '각주구경(刻舟求劍)'을 읽고 친구 하나가 이메일을 보내왔다. '손지우손(損之又損: 덜어내고 또 덜어냄)'을 읽었으니, 뽀셀 잘 해 들어가며 늘그막의 인생 차분히 살다 가라는 이를 테면 핀잔 걸 덕담이었다. 그리고 보니 뽀셀에 대한 생각은 어제 오늘의 새로운 생각은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전인 1989년 뽀의 해, 이제는 애 엄마가 된지 5년이 넘는 막내딸이 열두 살 되는 해부터라고 기억된다.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사보(社報) 편집자로부터 글 한줄 써 달라는 요청을 받고 '뽀셀의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친구 시인의 시를 인용해 가며 잡문(雜文) 한 편을 썼던 것이 생각나서 꺼내어 읽어보고 아래에 소개한다.

"뽀셀은 끝났다/ 밥과 잠을 줄이기가 시작해야 한다/ 남은 것이아곤/ 때론 문패와 헤어질 옷가지/ 이것이 나의 모든 재산일까/ (중략) 이제는 정물처럼 창가에 앉아/ 바깥의 저녁을 바라보면서/ 뽀셀을 한다/ 혹은 모자라지 않을까/ 그래도 무엇인가 남을까(김광규의 시 '뽀셀'에서)

송년회를 겸한 시인의 출판기념회에서 돌아오면서 한 해를 보내며 그래도 한 줄 시를 얻은 친구에 대한 부러움이 희미한 질투인 것 같아 부끄러웠다. '열심으로 한 해를 살았노라고'는 하지

만 부쩍 키가 크고 목소리가 다소 어른스러워진 삼 남매의 대견함 외에 과연 얻은 것은 무엇인가. 세도가 어느새 깊어가고 내 뽀셀의 미학은 어렵기만 하다.

아주 오래된 일로 부장 초년생 때, 내가 주재법에도 사내 여사원 모임의 초청연사가 되어 진땀 흘리던 때의 일이 기억난다. 무슨 말끝엔가 여사원 하나가 우리 집 가훈(家訓)이 무언가를 물었는지, 가훈이 이야기 화제가 되었다. 아직은 아니지만, 내가 나이 들어 가훈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여보란 듯이 거실 벽에 걸어야 한다면, 60년대 유행가 가사 제목을 하나 골라 써 붙이리라.

"Think Twice." 부록 벤튼의 그 감미로운 저음의 허스키를 60년대 AFKN을 통해 즐겨 들던 팝뮤직 애호가들은 기억하겠지. 실은 연가(戀歌)

였으나 가사의 내용은, 아무래도 좋아. 적어도 한번은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서서 더 생각해 보자. 조금 억울한 듯 하더라도 Think Twice. 집에서부터 이것을 시작하기로 한다면, 오! 개구쟁이를 징벌하기 전에 엄마! Think Twice.

세월이 흘러서 내 나이도 이른바 중년, 이제는 가훈 한 줄을 멋지게 써 걸어야 할 때가 되었건만, 이 말 씀은 아직도 공염불에 지나지 못하고 있다. 우선 내가 준행(遵行)할 자신이 있어야지. 수범(垂範)의 어려움이 갈수록 무겁게 느껴지는 것만도 뽀셀에서 얻어지는 한 가닥 지혜라면 지나친 자위일까. 그러므로 새해에는 기필코 가훈 한 줄을 부끄럼 없이 써 붙여 보리라. 뽀의 해에 큰 구멍이 꿈을 꾸고 막내딸을 얻었다. 뽀셀 중이었으므로 주책이었고 욕심스러웠지만, 저녁에 키를 대보니 막내 머리가 어깨 위로 솟는다. 갓난 아이

뽀셀에서 얻어지는 한 가닥 지혜

가 열두 살이 되어 다시 맞는 뽀의 해에 가훈 한 줄을 거꾸로 얻어보리라는 소망이 이제 소박하고 미소로운가, 아니면 가당찮은 너무 큰 욕심인가.

위의 글을 쓴 뒤에도, 뽀셀을 계속하며 몇 년의 세월이 더 지났지만 종래 'Think Twice'를 써서 가훈이랍시고 붙이지는 못하였다. 그 대신 다른 방편이 하나 생겼다. 한문 공부 좀 하고 서예를 배운답시고 1993년부터 어깨너머로 몇 년 붓 잡는 법을 배웠는데, 당시 알게 된 중국 서법사(書法師) 마광문(馬廣文)씨가 '신사(愼思)'라고 쓴 예서(隸書) 소품(小品)을 한 점 선물로 주었다. 내 나름의 감상으로는 생각 '사(思)' 자는 뛰어 도망가려는 마음의 모습을 표현한 듯 하고, 삼갈 '신(愼)' 자는 창과 방패를 든 마음의 주인이 엄거주춤 이를 외면하고 선듯한 모양으로 쓴 것처럼 보이는데, 단지 내 보기에 그렇다는 것일 뿐 자자의 의도는 물어보지도, 물어볼 필요도 느끼지 않았다.

'신사(愼思)'와 'Think Twice'. 뜻의 어울림이 그럴듯 하기에 벽에 걸어놓고 바라본지 오래 된다. 아이들은 '신사(愼思)'든 'Think Twice'든 아랑곳 없이 제 맘대로 커서 짝 지어 행거쪽을 만들어 떠나갔고, 20년 역사도 넘는 가훈 써 붙이기 프로젝트의 장엄한 이 흔적은 여러 차례의 전후와 같은 이사(移徙)를 무사히 살아남아, 아직도 아파트 거실 반닫이 위에 걸려 있다. 오늘 코칭 공부를 하게 된 노년 주인공의 회상(回想) 주제가 되었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북한의 불교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북한불교를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새롭게 발간되었습니다



- 1장 · 북한의 현존 사찰
- 2장 · 북한의 주요 사찰
- 3장 · 북한의 불교문화재
- 4장 · 북한불교의 이해
- 5장 · 북한의 사찰계산

● 저 자 : 장용철, 서유석 외 공저
 ● 사 양 : 4x6배변형판, 520쪽
 ● 가 격 : 50,000원
 ● 발행처 : (재)대한불교진흥원 출판부 (문의 : 02-719-2606)
 ● 구입 문의 : 02-3672-7181

가깝고도 먼 한반도의 반쪽,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사찰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하지만 북한에도 귀중한 불교문화의 으뜸 유산인 사찰은 오롯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배불정책과 한국전쟁의 풍년을 견디고 웅장한 모습을 간직해온 북한의 사찰! 일제강점기를 전후한 다시 볼 수 없는 흑백사진과 새로 입수한 생생한 컬러 사진으로 엮은 <북한의 사찰>에서 북한의 과거와 현재의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불가침으로 여겨진 북한의 현재 불교 동향과 현황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한불교진흥원 www.kbpf.org 구입 문의 : 02-3672-7181, 02-719-2606

한 권으로 읽는 전통사찰의 모든 것!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불교 전문학술서가 아닙니다. 불자는 물론 일반인 누구나 쉽게 사찰이라는 공간을 이해할 수 있는 현대적 형태의 사지입니다.

사찰이 산중의 수행터만이 아니라 대중과 더불어 함께 하는 열린 공간임을 우리나라 전통사찰 중 대표로 손꼽히는 명찰, 전등사·화엄사·월정사 편을 통해 확인해 보십시오!

전등사 1 숭한 외침에 맞섰던 최후의 보루지엄 강화도, 전진의 한가운데서 호국사찰로서 면모를 유지해옴과 동시에 독창적인 각종 축제로 대중과 함께 하는 오늘의 전등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172쪽/울림/18,000원 |

화엄사 2 6.25전쟁 중 폐허로 변한 주변 암자와 달리 화를 면하고 문화재의 백림화라 할 만큼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존하고 있는 화엄사 절곡의 역사를 간직한 채 각종 법회와 교육사업 등으로 대중 속에 파고드는 화엄사를 만날 수 있다. | 저자 · 신대현, 신국판/228쪽/울림/20,000원 |

월정사 3 오대산의 중심사찰로 개산초 자장율사에서부터 근대의 한양, 탄핵스님에 이르기까지 이룩한 선지식들이 머물던 곳 월정사 국보 팔각구층석탑 등 문화재에 대한 상세설명은 물론 '단기총가'로 유명한 현재의 모습과 각종 행사 등을 일목하듯 소개하고 있다. | 저자 · 한성길, 신국판/232쪽/울림/20,000원 |



발행 및 보급: 대한불교진흥원
 ☎ 02-719-2606

※ 한국의 명찰시리즈는 계속 발간됩니다.